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 우수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31814?sid=102

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곽소연 양[공주]국립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외식상품학과 곽소연 학생이 나우쿠킹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식약처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간편조리세트(밀키트)의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요리법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더 건강한 간편요리 한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외식상품학과 1학년 곽소연 학생은 본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7: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예선을 통과했다. 본선에서 주요리 '미옹카레'와 곁들임 요리로는 '두부치즈스틱 먹으면 바나나?'를 선보였으며 창의적인 레시피로 저당·저나트륨 레시피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곽소연 학생은 "아직 1학년이지만 교수님들께 영양, 조리, 외식산업, 비즈니스의 다양한 전공과목을 배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었고 외식상품학과에 자랑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서 좋았다. 대회장에 뛰어난 학생들이 많아 자극을 받았고 앞으로 더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경심 학과장은 "곽소연 학생은 종합전형으로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과를 입학한 학생으로 학과에서 과대를 맡으며 학과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며, 이번 대회에서 학과 교수님들에게 배운 전공 지식을 이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내어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대학교 외식상품학과는 조리 및 식품 등의 다양한 분야와 스마트 산업사회에서 필요시 되는 상품기획과 식품연구개발, 서비스경영과 비즈니스마인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타 대학에서 조리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편입 문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원성수) 외식상품학과 곽소연 학생이 나우쿠킹 스튜디오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식약처장상)을 수상했다. 사진=공주대 제공

[교육소식]대전대 바이오헬스 디지털 혁신공유사업단 산학협의회 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08753?sid=102

협의회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대는 바이오헬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사업단이 교내에서 산·학 온-오프라인 '만남의 장’인 바이오헬스 산학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요찬 사업단장 인사말에 이어 대전대 내 다른 산학협의체와의 교류 방안을 설명했다.이날 이엔유 주식회사 이지우 대표가 ‘산업용 실시간 지능형 IoT 협업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현황 및 가상병원 의료업무 편의 시스템 개발 제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또 사업단 서중석 교수가 ‘미래병원’ 구축 관련 디지털 리빙랩 과제를 제안한 후, 산업체 이슈로 ‘미래병원–스마트 병원(Smart Hospitals)’과 ‘미래병원–가상병원·가상의료(Virtual Healthcare)’를 발표했다.◇공주대 외식상품학과 곽소연씨 ‘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 우수상  
  
  
  
공주대 곽소연씨 \*재판매 및 DB 금지공주대는 외식상품학과 1학년 곽소연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식약처장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간편조리세트(밀키트)의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요리법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더 건강한 간편요리 한끼’라는 주제로 열렸다.곽씨는 주요리 '미옹카레'와 곁들임 요리로는 '두부치즈스틱 먹으면 바나나?'를 선보였다.

‘집사’ 오마이걸 미미, 꽃받침 포즈로 사랑스러운 매력 발산 [SNS★컷]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9/0000337169?sid=106

[뉴스엔 장혜수 기자]그룹 오마이걸 멤버 미미가 SNS를 통해 근황을 공개했다.   
10월 8일 미미는 자신의 SNS에 "미옹 건강해서 다행입미옹 미옹이 자는 사이입미옹"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사진과 고양이 '미옹'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미미는 색깔이 다양한 니트, 베이지색 바지를 입어 발랄한 매력을 발산했다. 하늘색이 섞인 헤어 스타일이 귀여운 룩에 포인트가 됐다.   
해당 게시글에 팬들은 "미옹이도 미미도 건강 잘 챙기기" "너무 귀여워요" "무심한 듯 사진 찍은 거 너무 멋있어요" 등 반응을 보였다.미미가 속한 그룹 오마이걸은 4월 27일 7집 미니 앨범 'NONSTOP'을 공개했다.   
(사진= 미미 인스타그램)뉴스엔 장혜수 zero@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의붓아들 성폭행, 처제와 불륜... 대표 지식인 만행에 프랑스 경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96022?sid=104

저명한 헌법학자의 의붓아들 성폭행 이어 국경없는 의사회 창립자의 처제와 불륜 사건도 터져 올해 71세로 명문 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 명예교수인 헌법학자 올리비에 뒤아멜. 그는 오랫동안 방송 진행자, 변호사, EU의회 의원, 신문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해왔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대우받았다. 프랑스어권의 모든 법학도가 그가 쓴 책으로 헌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뒤아멜은 프랑스를 움직인다는 말을 듣는 엘리트들의 사교모임 ‘르 시에클(Le Siècle)’의 회장이기도 했다.  
  
  
  
올리비에 뒤아멜/AFP 연합뉴스 지식인 사회의 정점에 있던 뒤아멜을 향해 지난 1월초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다. 그가 1987년 재혼한 두번째 부인 에블린 피지에(1941~2017)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아 데려온 의붓아들 빅터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것이었다.폭로한 사람은 빅터의 이란성 쌍둥이로서 뒤아멜의 의붓딸인 카미유 쿠슈네르(46)다. 이 사건은 한달 넘게 프랑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등장 인물들이 죄다 지식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배운 사람들의 추악한 내면이 드러나고 있다.  
  
  
  
생전 에블린 피지에의 2002년 모습/AFP 연합뉴스 카미유에 따르면, 1988~1989년 뒤아멜은 당시 13~14세이던 빅터의 방에 수시로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2년 이상 이런 일이 지속됐다고 한다. 당시 빅터는 쌍둥이 누이 카미유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했다.쌍둥이가 30대가 됐을 때 카미유는 어머니 에블린 피지에에게 뒤아멜이 어린 시절의 빅터를 성폭행했다고 알렸지만, 에블린은 남편을 보호하기로 하고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카미유 쿠슈네르가 의붓 아버지 올리비에 뒤아멜의 추악한 이면을 폭로한 책 '대가족(La Familia grande).'/AP 연합뉴스 에블린으로서는 세간에 알려진 사회 지도층 집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근친상간이라는 충격적인 가정사가 공개되는 것을 꺼렸을 가능성이 있다. 에블린은 출생지가 베트남 하노이인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반도를 식민통치할 때 아버지가 총독이었기 때문이다.에블린은 소르본대 정치학 교수, 변호사, 소설가로 활동하면서 여성 좌파 지식인으로 이름값이 높았다. 20대 시절 에블린은 쿠바에 가서 4년간 피델 카스트로의 연인으로 지내며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젊은 시절 페미니즘 운동을 가열차게 전개했다. 에블린은 젊은 시절 인권을 강조했지만 막상 아들이 성폭행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의붓아버지 뒤아멜의 추악한 이면을 폭로한 카미유 쿠슈네르. 파리5대학 법학과 교수다./위키피디아 딸 카미유는 노동법 권위자로 파리5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어린 시절 계부 뒤아멜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빅터는 파리7대학 교수로서 천체 입자 물리학의 대가로 꼽힌다.빅터의 실제 이름은 앙투안이지만 카미유는 빅터라는 가명으로 이 사건을 공개했다.에블린이 2017년 세상을 뜬 다음 카미유는 뒤아멜의 근친상간 악행을 주변에 이야기하면서 조금씩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결국 올해 1월초 ‘대가족(La Familia grande)’라는 책을 써서 뒤아멜이 숨겨온 과거를 낱낱이 공개했다.  
  
  
  
어린 시절 의붓아버지 뒤아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시인한 앙투안 쿠슈네르 파리7대학 교수. 쌍둥이 누이 카미유는 책에서 '빅터'라는 가명으로 앙투안을 소개했다./파리7대학 프랑스인들은 지식인으로 존경받던 뒤아멜의 추악한 사생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뒤아멜 역시 사회당원이고 사회당 소속으로 EU의회 의원을 지내 좌파 지식인으로 분류된다.카미유가 책에 쓴 내용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빅터는 일간 르몽드 인터뷰에서 “카미유가 쓴 내용은 모두 진실”이라고 했다.파문이 커지자 뒤아멜은 시앙스포를 감독하는 기구인 ‘국립정치학재단(FNSP)’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지난 11일에는 시앙스포의 프레데리크 미옹 총장이 사퇴했다. 미옹 총장은 뒤아멜의 근친상간 의혹에 대해 예전부터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지만 언론의 질문에 모른다고 대응했고, 이런 태도가 거짓이라는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사표를 냈다.  
  
  
  
뒤아멜 사건의 여파로 사임한 프레데리크 미옹 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 총장/로이터 연합뉴스 카미유는 어머니 에블린 피지에와 친부를 둘러싼 추문도 공개해 또다른 충격을 가져왔다. 에블린의 첫 남편이자 카미유·빅터의 친부 베르나르 쿠슈네르(82)는 ‘국경없는 의사회(MSF)’를 설립한 의사다. 프랑스 보건장관·외무장관을 지낸 중량급 정치인이기도 했다.  
  
  
  
쌍둥이 남매 카미유, 빅터 쿠슈네르의 친부인 베르나르 쿠슈네르. '국경없는 의사회'를 창설한 의사이며 프랑스 보건장관, 외무장관을 지냈다./위키피디아 카미유는 친부 베르나르가 에블린의 여동생이었던 영화배우 마리-프랑스 피지에(1944~2011)와 내연 관계였다고 공개했다. 즉 카미유에게는 아버지의 내연녀가 이모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에블린은 남편과 여동생이 내연 관계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카미유는 주장한다. 카미유는 책에서 “어머니와 이모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다. 심지어 남편까지도”라고 썼다.  
  
  
  
1960~70년대 프랑스 영화배우였던 마리-프랑스 피지에. 그가 형부 베르나르 쿠슈네르와 내연 관계였다고 조카인 카미유 쿠슈네르가 폭로했다./르푸앵 딸의 폭로에 의해 에블린은 사후에 이름값에 먹칠을 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동생과 첫번째 남편을 공유한 삼각 관계였다는 추문이 드러나고 두번째 남편이 아들을 성폭행한 근친상간에 대해 고의로 침묵했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베르나르 쿠슈네르는 국경없는 의사회를 설립해 인도주의를 실천한 의사로 존경받아왔지만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이 들통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파리=손진석 특파원 aura@chosun.com] ▶ 조선일보가 뽑은 뉴스, 확인해보세요 ▶ 최고 기자들의 뉴스레터 받아보세요 ▶ 1등 신문 조선일보,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마크롱 나온 佛명문대 '미투' 봇물…대표 지식인까지 연루 [글로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499338?sid=104

SNS에 100건 넘는 성폭행 사례 올라와마크롱 대통령의 모교인 정치 분야 프랑스 최고 명문대 '시앙스포'(파리정치대학)가 잇따른 미투(#MeToo·나도 당했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앙스포'(SciencePo)와 프랑스어로 돼지를 뜻하는 '포크'(porc)를 합쳐 만든 해시태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나가고 있다.15일(현지시간) 일간 르몽드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앙스포가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지방캠퍼스에서 재학생 성폭행, 성차별을 고발하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학교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시앙스포 보르도 캠퍼스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여학생이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 학교 측 대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게 시발점이 됐다. 툴루즈 캠퍼스의 여학생도 2년 전 같은 학교 학생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이달 초 올린 편지가 불을 붙였다.지난 11일까지 SNS에는 100건이 넘는 성폭행, 강간 피해 사례와 함께 가해자는 별다른 처벌 없이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고 르몽드는 보도했다.이중 툴루즈 캠퍼스에서의 강간 1건, 그르노블 캠퍼스에서의 성폭행 2건, 스트라스부르 캠퍼스에서 학장이 신고한 사건 1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수사가 시작됐다.프레데리크 비달 교육부 장관은 이 사안을 시앙스포 이사진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마를렌 시아파 내무부 시민권 담당 국무장관은 용기 있는 고백을 응원한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독려했다.이 와중에 시앙스포를 감독하는 국립정치학연구재단(FNSP) 이사장이었던 올리비에 뒤아멜의 근친상간 의혹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프레데리크 미옹 학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뒤아멜은 프랑스 정계에서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지식인이다. 올해 71세로 시앙스포 명예교수이자 헌법학자인 뒤아멜은 오랫동안 방송 진행자, 변호사, 유럽연합(EU) 의회 의원, 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해왔다.프랑스어권의 모든 법학도들이 그가 쓴 책으로 헌법을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뒤아멜은 프랑스를 움직인다는 말을 듣는 엘리트들의 사교모임 '르 시에클(Le Siecle)'의 회장이기도 했다.파문이 커지자 뒤아멜은 시앙스포를 감독하는 기구인 '국립정치학재단(FNSP)'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미옹은 교육부 내부 조사 결과 뒤아멜의 근친상간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학내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언론에도 허위로 대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경 고품격 뉴스레터, 원클릭으로 구독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 추문에 휩싸인 프랑스 명문대학 시앙스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2198590?sid=102

지방캠퍼스에서 재학생 성폭행 피해 고발 잇따라시앙스포 감독기관장 근친상간 의혹 은폐한 학장 사퇴  
  
  
  
프랑스 정치학연구소(IEP)[AFP=연합뉴스. DB 및 재판매 금지](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시앙스포크(#scienceporcs). 프랑스 최고 명문대학으로 꼽히는 정치대학(IEP) '시앙스포'(SciencePo)와 프랑스어로 돼지를 뜻하는 '포크'(porc)를 합쳐 만든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채워나가고 있다. 시앙스포가 학부 과정을 운영하는 지방캠퍼스에서 재학생의 성폭행, 성차별을 고발하는 증언이 잇따르고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학교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다. 보르도 캠퍼스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여학생이 지난달 말 페이스북에 학교 측의 대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게 시발점이었고, 툴루즈 캠퍼스의 쥘리에트가 2년 전 같은 학교 학생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이달 초 올린 편지가 도화선이 됐다. 11일(현지시간)까지 SNS에는 100건이 넘는 성폭행, 강간 피해 사례와 함께 가해자는 별다른 처벌 없이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폭로 글이 올라왔다고 일간 르몽드가 보도했다. 이중 툴루즈 캠퍼스에서의 강간 1건, 그르노블 캠퍼스에서의 성폭행 2건, 스트라스부르 캠퍼스에서 학장이 신고한 사건 1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됐다. 프레데리크 비달 교육부 장관은 해당 사안을 시앙스포 이사진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마를렌 시아파 내무부 시민권 담당 국무장관은 용기 있는 고백을 응원한다며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독려했다. 그 와중에 시앙스포를 감독하는 국립정치학연구재단(FNSP) 이사장이었던 올리비에 뒤아멜의 근친상간 의혹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프레데리크 미옹 학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옹은 교육부 내부 조사 결과 뒤아멜의 근친상간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학내 구성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언론에도 허위로 대응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뒤아멜은 프랑스 정계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정치학자로, 30여년 전 의붓아들을 지속해서 성폭행했다는 의붓딸의 최근 폭로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뒤아멜이 미성년자였던 의붓아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의회와 정부는 이를 계기로 근친상간 처벌을 강화하고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프랑스법은 성인과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미성년자가 협박당하거나, 속임수에 넘어간 게 아니고 관계에 동의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강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runran@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기본소득제, 美알래스카만?▶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투스토리 “따뜻하고 아늑한 2층으로 오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059503?sid=103

[인터뷰] 여성듀오 투스토리 “여성의 삶, 가사로 풀어내기 어려워 ‘노래 좋다’는 표현 범위 넓어졌으면”  
  
  
  
투스토리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예진(왼쪽)과 기타를 담당하는 미옹.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투스토리는 고층도 지하도 아닌 2층의 따스하고 아늑한 공간을 의미한다. 이름의 의미처럼 투스토리의 노래는 통통 튀면서도 진중하다.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메시지를 경쾌한 멜로디에 담아 재기발랄하게 풀어낸다.지난달 26일 서울 충정로의 한 카페에서 투스토리를 만났다. 투스토리는 2012년 Ep앨범 ‘2story’로 데뷔한 여성듀오다. 기타를 연주하는 미옹(39)과 보컬 예진(29)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서울 광화문에서 ‘2017 페미니스트 직접행동-나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 행사 무대에 오른 투스토리는 사회를 풍자하는 ‘적당히 좀 합시다’ 집을 구하러 다니는 어려움을 노래한 ‘구주견문가’ 등을 불러 참가자들의 환호를 끌어내기도 했다.둘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0년 처음 만났다. 미옹이 예진을 눈여겨봤다가 팀을 제안했다. “제가 언니 주변 뮤지션들 팬이었어요.”(예진) “제 친구가 2집 앨범 나왔을 때 타이틀곡을 커버하는 작은 이벤트를 했거든요. 트램폴린이라는 팀이었어요. 그때 예진이 노래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어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바로 같이하자는 제안을 했죠.”(미옹)지금은 가족 같은 사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예진은 미옹을 어려워했다. “서로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만나니 힘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음악을 만들어간다’는 개념이 컸고요. 예진이는 신입사원의 마인드로 ‘시켜만 주세요’ 이런 마음이었죠. 10살이라는 나이차도 무시 못했던 것 같아요(웃음).”(미옹) “만나자마자 앨범 작업을 해야 했고, 결과물을 내야 했어요. 저는 뭐라도 배워야겠다는 입장이었어요.”(예진)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편해졌다.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술 친구다. 주로 와인을 마신다. 대화 주제는 음악이다. 밤낮으로 나눈 대화를 통해 둘의 음악은 정체성을 잡아갔다. 결론은 어려운 내용이라도 쉽게 접근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투스토리의 음악은 귀를 즐겁게 하는 어쿠스틱 팝이 기본이지만, 그 안에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다.‘도사리 카페’도 그런 노래 중 하나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는 노래지만 멜로디만큼은 슬프지 않다. 예진은 “여성뮤지션들이 모여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컴필레이션 앨범을 만들었다. 좋은 기회로 2집 앨범에 참여하게 됐다”며 “1집을 들어 보니 멜로디, 가사 거의 다 슬픈 곡이더라. 굳이 위안부라는 주제 안에서 찾아 듣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증언록을 보면서 할머니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가사가 뭘까 고민했어요. 그때 바그다드 카페란 영화가 떠올랐어요. 영화를 보면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던 아내들이 바그다드 카페로 오거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마술쇼하며 노는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사에도 ‘나이 성별 이름 모두 내려놓고 도사리 카페로 오세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도사리는 다 익지 못해서 떨어진 열매를 뜻해요.”(미옹)  
  
  
  
투스토리. ©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예진은 문과생, 미옹은 이과생 스타일의 가사를 쓴다. 예진은 같은 가사라도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다. 반대로 미옹은 떠오르는 대로 쉽게 쉽게 쓰는 편이다. 미옹은 자작곡인 데칼코마니를 설명하며 “호수에 비친 풍경을 봤는데 밑에도 하늘, 위에도 하늘이었다. 접어서 피면 똑같을 것 같더라”라며 “호수가 잔잔하게 흐르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했다”고 말했다. 데칼코마니는 미옹이 처음 작사한 곡이다. 이를 예진이 세월호 추모곡으로 다시 가사를 바꿔 썼다. 예진은 “가사만 보면 아무도 세월호 추모곡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둘은 페미니스트로서 “여성의 삶을 가사로 풀어내기가 어렵다”고도 솔직히 털어놨다. 예진은 “페미니스트들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여성으로서 사는 삶을 노래하고 싶기도 한데 은근히 가사로 쓰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우리가 겪는 문제, 여성들의 인생을 가사에 담고 싶다는 얘기는 계속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데올로기나 고정관념, 이론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아직은 고민만 하고 있어요. 이걸 차차 풀어가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해요.”(미옹)투스토리의 목표는 투스토리만의 스타일을 잃지 않으면서도 퀄리티가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노래를 음원으로 듣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 좋은 환경에서 음반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예진)“좋은 음악을 하는 게 음악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목적 아닐까요. 사람들이 ‘노래 좋다’고 말하는 표현의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우리답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음악을 만들고 싶거든요.”(미옹) 이유진 여성신문 기자 (bazzi@womennews.co.kr)

Citylife 제367호 - 우리동네 멋진 공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2900413?sid=103

Zoom in 돈데보이남아있는 자와 떠나야만 하는 자   
  
  
  
 3월 14일(목) ~ 3월 17일(일) 목, 금 오후 8시 / 토 오후 3시, 6시 / 일 오후 3시 | 연출 송현옥 | 출연 정아미, 김충근, 이주원, 홍기준, 나현민, 강경래, 윤국희, 오주원, 안태영, 강지은, 장진호, 김예샘, 김수지 |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 VIP 7만원 / R 5만원 / S 3만원/ A 1만5000원 | 문의 02-2665-3567 멕시코와 국경 지대를 이루고 있는 미국. 국경을 몰래 넘나드는 멕시코 난민들 때문에 경비는 나날이 삼엄해지지만,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난민들의 이주는 끊이지 않는다. 가족과의 슬픈 이별을 뒤로 하고, 불법으로 중간 브로커를 통해 미국으로 가는 기차표를 얻은 19명은 희망을 안고 기차에 오른다. 이들은 기차를 타고 노래를 부르거나 게임을 하며 공포스럽고 불투명한 여정을 견뎌낸다. 그러나 지난한 여정이 계속 될수록 이들과의 바람과는 달리 기차는 선로를 이탈하고, 급기야는 멈추고 만다. 이어지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들은 미국 땅에 닿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광기에 휩싸인다.이 작품은 먼 나라 사람들의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미해결과제로 남아있는 민족 간의 아픔과 슬픔을 상기시킨다. 남아있는 자와 떠나야만 하는 자들의 이야기와 우리나라로 이주한 다양한 이민자들. 삶을 영위해가는 다문화 가정의 애환을 함께 돌아보며 관객은 동시대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직면하게 된다.극단 물결은 그 동안 독창적인 신체 미학으로 크게 호평 받아왔다.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깊이와 상징적인 묘사는 몸짓언어와 역동적 신체 미학을 통해 이 작품에서 더 큰 생명력을 얻을 것이다. 음악은 이 작품에서 한 줌의 희망이며 한 줄기의 빛과도 같은 구원으로 상징된다. 노래 속에 담긴 이들의 애환은 풍부한 선율을 통해 관객들의 감성을 자극할 예정이다. 2Story - 2013 INCUBATING INDIE MUSIC #1   
  
  
  
 3월 16일(토) 오후 8시 | 장소 명동 커먼플레이스 | 일반 1만5000원 | 문의 02-755-9478 인큐베이팅 인디뮤직은 커먼플레이스에서 진행하는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이다. 2013년 첫 단독 공연 무대는 2Story가 장식한다. 2Story는 사이키델릭밴드 네눈박이나무밑쑤시기, 집시풍 밴드 오르겔탄츠의 기타리스트로 활동했던 미옹과 실력파 신예 보컬 예진으로 구성된 여성 듀오이다. 기타리스트 미옹은 이전 활동에서 매니악한 장르의 음악활동으로 독자적인 팬층을 형성했고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났다.이후 미옹은 자신이 담긴 음악과 팝을 중심으로 곡을 쓰기 시작했고 우연히 예진의 보컬 동영상에 반해 함께 2Story를 결성하게 되었다. 1년여의 시간을 거쳐 EP앨범 - 2Story 발매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공연 멤버 권지영, 배광일과 함께 활동 중이다. 빈 챔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3월 15일(금) 오후 8시 | 장소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 R 5만원 / S 4만원 / A 2만원 | 문의 02-440-0500 섬세한 음색으로 빈의 소리를 들려주는 빈 챔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인 지휘자 클라우디스 트라운펠르너와 네덜란드 출신의 첼로 기대주 하리에트 크라이그와 함께 내한공연을 갖는다.빈 챔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85년 지휘자 클라우디우스 트라운펠르너가 설립하였으며, 젊은 국제대회수상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듬해부터 세계무대로 활동영역을 넓혀 공연을 개죄 하였으며 유럽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에서 투어 공연을 하며 고전 뿐만 아니라 동시대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해외 유명 연주자들과 협연을 통해 다채로운 음악을 선사하고 있다. 엠씨더맥스 단독 콘서트 - 미니멈 앤 맥시멈   
  
  
  
 미니멈 콘서트 3월 13일(수) ~ 3월 24일(일) / 맥시멈 콘서트 3월 27일(수) ~ 3월 31일(일) 수, 목 오후 8시 / 토, 일 오후 5시 | 장소 인터파크아트센터 아트홀 | 전석 7만7000원 | 문의 02-3444-9969 발라드를 중심으로 팝 록을 주 장르로 명실공히 실력파 밴드로 자리잡은 M.C the MAX. 엠씨 더 맥스의 이번 공연은 ‘당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 - Moon Child the Minimum’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 Moon Child the Maximum’으로 나뉜다. Moon Child the Minimum는 관객들이 가장 듣고 싶은 곡을 현장에서 생생한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엠씨 더 맥스의 감동적인 멜로디를 담아 더 깊은 감성을 이끌어내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임으로써 결코 잊지 못 할 시간으로 머무는 공간이 될 것이다. Moon Child the Maximum에서는 콘서트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신곡무대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엠씨 더 맥스의 신곡을 처음으로 공연장에서 발표하는 시간이다. 엠씨 더 맥스만의 색깔이 짙은 감성발라드의 포근함을 벗어나 새로운 엠씨 더 맥스의 모습을 담은 화려하고 열정적인 무대로 여러분을 열광케 할 것이다.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담은 엠씨 더 맥스 속 맥시멈, 엠씨 더 맥스의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롭고 특별한 공연이 될 것이다. 산과 바다   
  
  
  
 3월 16일(토) 오후 7시 |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A 4만원 / B 3만원 / C석 2만원 / 휠체어 A 4만원 / 휠체어 C 2만원 | 문의 031-230-3322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에서 드뷔시 바다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을 연주한다. 알프스 교향곡은 알프스 산의 압도적인 모습을 담은 대편성 관현악곡으로, 125명 안팎의 연주자가 필요한 까닭에 국내 오케스트라가 거의 연주하지 못했던 대작이다. 호른 12대를 비롯해 금관악기만 수십 대가 동원되고 윈드머신, 선더머신 등 특수 악기가 사용되어 어마어마한 음향적 장관이 펼쳐질 이번 공연은 관현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놓칠 수 없는 값진 기회가 될 것이다.드뷔시의 ‘바다’는 인상주의 음악양식을 대표할 만한 관현악곡으로, 바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상상 속의 바다를 환상적인 색채감으로 나타낸 교향시이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알프스 교향곡은 산의 거대한 모습과 산을 오르면서 볼 수 있는 경치, 산에서 길을 잃고 헤멜 때 느끼는 공포 등, 등산객의 하루 밤낮을 22개 표제로 나타낸 단악장 교향시이다.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욱 큰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367호(13.03.05일자) 기사입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스토리, 세 번째 싱글 ‘다즐링’ 공개 ‘이층 언니들의 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82/0000476651?sid=106

미옹과 예진으로 구성된 여성 듀오 '투스토리'가 첫 번째 정규앨범 <첫 번째 이층 집>의 싱글 '구주견문가', '미도리'에 이어 세 번째 싱글 '다즐링'을 공개했다. 1집 <첫 번째 이층 집>에 수록된 열 곡의 노래들은 한 달에 한 곡 씩, 열 달 동안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곡을 작곡한 멤버 미옹은 "홍차의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인도의 다즐링에서는 손으로 직접 천을 꿰매 소포를 부쳐준다. 그 곳에서 소포를 보냈던 때를 생각하며 곡을 썼고 예진이 어느 날씨 좋은 오후, 살랑이는 바람을 느끼며 가사를 붙였다"며 곡의 탄생 배경을 밝혔다. 특히 작사를 담당한 멤버 예진은 "지금 이 산들바람이 당신의 어깨에도 앉았다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즐링'을 포함한, 이번 앨범을 위해 탄생된 열 곡에 보너스 두 곡까지 가득 담은 <첫 번째 이층 집> CD는 온,오프라인으로 판매중이며 각각의 음원들은 매달 멜론, 네이버뮤직, 지니,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등 국내외 주요 음원 서비스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동아닷컴 장경국 기자 lovewith@donga.com사진│포크라노스▶ 동아닷컴 연예팀 공식 페이스북/ 동아닷컴 스타 화보·스타 인터뷰▶ 이건 꼭 봐야하지 말입니다. '빅툰'- Copyrights ⓒ 스포츠동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그룹 2스토리, 데뷔 미니 앨범 ‘2Story’ 발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2/0002375088?sid=106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그룹 2스토리(2story)가 데뷔 EP ‘2story’를 발매했다.2스토리는 집시 스타일의 거리음악을 연주하던 ‘오르겔탄츠’와 싸이키델릭 밴드 ‘네눈박이나무밑쑤시기’의 기타리스트 출신인 미옹과 신예 보컬 강예진으로 구성됐다. EP엔 시원한 리듬으로 아름다운 해변의 데이트를 노래하는 ‘세렌디피티’와 28살 2층 베란다에 앉아 느낀 순간의 감정을 담은 ‘28’,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사노바와 삼바로 담은 ‘여름아이’, 여행길 피곤함을 함께한 길고양이에 대한 노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파란 하늘과 호수가 데칼코마니처럼 펼쳐진 듯한 몽환적 기분을 담은 ‘데칼코마니(Décalcomanie)’, ‘혼자만의 노래’ 등 6곡이 수록됐다. ‘굴소년단’의 김원구가 프로듀싱을 담당한 이번 EP엔 미옹의 ‘오르겔탄츠’ 시절 동료인 권지영이 바이올린, 재즈 피아니스트 임보라가 피아노, ‘집시앤피쉬 오케스트라’의 이동준이 베이스, ‘굴소년단’의 새 멤버 박영규(드럼) 등이 세션으로 참여했다.123@heraldcorp.com   
  
[오늘의 인기기사]  
◆ 이정희 측, 27억 먹튀 반박 “빚갚을 처지”   
◆ 이효리 해명…“제일 창피한 건 지난 대선 때”   
◆ 선관위, “대구 십알단 여부 조사 중”   
◆ 文캠프 대학생위, 현빈 사진 무단사용 논란   
◆ 투표독려 포스터에 민망한 생리대가…‘경악’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마이걸 미미, 고양이만큼 사랑스러운 집사 ‘상큼美 뚝뚝’ [SNS★컷]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09/0000395667?sid=106

[뉴스엔 장혜수 기자]그룹 오마이걸 멤버 미미가 근황을 공개했다.미미는 2월 2일 자신의 SNS에 "질�r뭉텅 차도남고땡 치명적사춘기미옹"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과 사진을 올렸다.동영상 속 미미는 상큼한 매력을 보였다. 미미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애교 있는 표정을 지으며 고양이를 안아 시선을 끈다. 미미는 민낯 공개와 함께 수수한 매력을 보이며 고양이와 행복한 일상을 공개했다.   
한편 미미는 유튜브 채널 '밈PD / [\_\_-\_\_\_\_\_-\_]mmmii'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미미가 속한 그룹 오마이걸은 지난 4월 27일 7집 미니 앨범 'NONSTOP'을 공개했다.(사진=미미 인스타그램)뉴스엔 장혜수 zero@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오마이걸 미미, 새끼 고양이와 함께 잠들었네..둘 다 귀여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2/0003353964?sid=106

미미 인스타그램[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오마이걸 멤버 미미가 귀여운 사진을 공개했다.15일 미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새끼 고양이를 안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미미는 사진과 함께 "우리 미옹... 기억하니...?"라고 글을 남겼다.사진 속 미미는 새끼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잠든 모습이다. 새끼 고양이 역시 미미의 품에 딱 달라붙어 곤히 자고 있다. 평화로운 미미의 모습이 힐링을 준다. 미미는 내추럴한 미모를 자랑한다.한편 미미는 '살짝 설렜어'로 활동했다.popnews@heraldcorp.com▶ K-POP 한류스타 바로 앞에서 본다 '리얼직캠'[헤럴드팝 네이버TV]- Copyrights ⓒ 헤럴드POP & heraldpop.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인지 감수성은 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387502?sid=102

▲ ‘성평등토크 콘서트’에서 열린 패널토론 참여자들이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향을 의논하고 있다. / 사진제공=수원시수원시가 지난 8일 ‘세계 여성의 날’을맞아 시청 대강당에서 ‘성평등 토크 콘서트’를 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미투(MeToo)시대의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성평등 전문강사의 특강과 패널 토크쇼 등으로 진행됐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인 황금명륜(김명륜)씨는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에서 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미투(MeToo) 운동이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확장될 때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여성 입장에서 말하는 일상 속 성별 고정관념과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박종아 수원시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 남궁영숙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원, 여성 2인조 어쿠스틱 밴드 ‘투스토리’ 멤버 예진과 미옹 등이 토크쇼 패널로 참여했다. 토크 참여자들은 “여성과 남성이 일상에서 서로 평등하게 교류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을 펼쳐 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입을 모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없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할 것”이라며 “시민의 성인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고수들의 재테크 비법 ▶ 박학다식 '이건희칼럼'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시,성평등 토크콘서트 개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508178?sid=100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성평등 토크 콘서트’를 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미투(MeToo)시대의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성평등 전문강사의 특강과 패널 토크쇼 등으로 진행됐다.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인 황금명륜(김명륜)씨는 “성인지 감수성은 일상에서 성평등을 의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라며 “미투(MeToo) 운동이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확장될 때 진정한 성평등 사회가 실현된다”고 말했다. 여성 입장에서 말하는 일상 속 성별 고정관념과 성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있었다. 최영옥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박종아 수원시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 남궁영숙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원, 여성 2인조 어쿠스틱 밴드 ‘투스토리’ 멤버 예진과 미옹 등이 토크쇼 패널로 참여했다. 토크 참여자들은 “여성과 남성이 일상에서 서로 평등하게 교류하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서 미투 운동을 펼쳐 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fob140@heraldcorp.com▶네이버에서 헤럴드경제 채널 구독하기▶주말엔 더 파격적인 할인, 헤럴드 리얼라이프 ▶헤럴드경제 사이트 바로가기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ICBM, 왜 하필 그 시간 자강도였을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087968?sid=100

[아침신문 솎아보기] 사드 실효성 의문 제기한 경향·한겨레…조선일보는 ‘공포의 균형’ 주문[미디어오늘 이하늬 기자]북한이 지난 28일 밤, 최대 정점 고도 3724.9km, 비행거리 998km로 지난 4일 발사 때보다 더 진전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을 다시 쏘아올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도 일정한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미사일에 제동걸린 '베를린 구상'>국민일보 <"사드배치, 북 독자 제재" 운전대 트는 문 대통령>동아일보 <북 타격할 탄두, 무게 제한 철폐 추진>서울신문 세계일보 <레드라인 밟은 북, 강경하진 남 한반도 '위기의 8월'>조선일보 <뉴욕까지 사정권 '북핵 개임' 바뀌었다>중앙일보 <김정은 폭주에 브레이크 걸린 베를린 구상>한겨레 <북 미사일에 '베를린 구상' 타격, 한반도 '강 대 강' 격랑>한국일보 <허 찌른 북 "언제 어디서든 미 쏜다">   
  
  
  
▲ 한국일보 1면 기사 왜 하필 밤에? 왜 하필 자강도였을까 ? 지난 28일 밤 11시41분 자강도,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았다. 북한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화성-14형은 최대고도 3724.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12초간 비행해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주목할 것은 시간과 장소 두 가지다. 북한은 지금까지 대부분 미사일 시험발사를 주간에 실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감시를 피하면서 기습발사 능력을 제고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노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인들의 충격을 극대화 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자강도라는 지역 역시 북한의 의도가 녹아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화성-14형을 처음 쏠 때 평북 구성 발사장을 이용한 것과 달리 북중 접경 지역인 자강도로 장소를 옮겼다.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ICBM을 언제 어떤 장소에서도 자유자재로 쏠 수 있다는 점을 대내 외에 알린 셈이다.   
  
  
  
▲ 한겨레 1면 기사 문재인 정부, 베를린 구상 위협받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동안에도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베를린 구상도 이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이번 발사로 청와대는 화해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국제사회 분위기도 강경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정보는 사드 발사대 4기를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29일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맞불 사격훈련, 독자적 대북 제재 검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 개시를 지시했다. 서울신문은 "단기간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꺼내든 셈"이라며 "기존의 대북 전근법과는 확연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 경향신문 4면 기사 경향·한겨레, 사드 실효성의 의문 제기 이 같은 정부 대응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북한에 대한 응징 차원의 대응이 어느 정도 필요하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한 축이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강경 일변도 방식으로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썼다. 이어 경향신문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사드 부치 일반 환경영향평가 방침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이날 사설에서 "강경책에 치우친 군사 대응은 한반도에 짙은 먹구름을 부르며 위기를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강 대 강 대결로 치닫게 되면 우발적, 국지적 충돌이 한순간에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동아일보 사설 '공포의 균형' 주문하는 조선일보 반면 동아일보는 사드배치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킬수록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요격시스템의 강화"라며 "이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모순적 제스처 대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공포의 균형'을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김정은이 섣불리 행동하면 자동적으로 파멸한다는 사실이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자명해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의 핵우산은 공포의 균형에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역시 "문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이번 도발은 동북아 안보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게임체인저'의 성격이 짙다"며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펴는 수밖에 없다. 북을 핵 야망 미옹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그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 한겨레 4면 기사 트럼프 "말만 하는 중국 용인치 않을 것" 미국은 단단히 뿔이 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트위터에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만한다"며 "미국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으로 한해에 수천억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용했다"고 중국을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에도 성명을 내 "한달도 안 돼 실시한 두번째 ICBM 발사 시험은 북한 정권의 무모하고 위험한 가장 최근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서명까지 냈다는 것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본토가 공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이상 직접 문제를 풀 수밖에 없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일단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북한을 움직이게 만드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고 그 사이에 '참수 작전' 등 북한 정권 붕괴 구상과 대북 무력 공격을 염두에 두고 관련된 준비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조선일보 30면 기사 문재인 대통령, 첫 여름휴가 문 대통령이 30일 취임 뒤 첫 여름휴가를 떠났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취소될 뻔 했으나 문 대통령이 그동안 국민들에게 '쉼표 있는 삶'을 공약하고 독려한 점 등을 고려해 애초 출발보다 하루 늦췄을 뿐 휴가는 그대로 감행하기로 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알펜시아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31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안 대통령 별장에서 남은 휴가 기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긴급한 상황을 신속히 보고받고 화상회의 등으로 군통수권자로서의 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김정은 보란듯, 휴가떠난 문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직후 휴가를 떠난다는 것 자체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다"며 "북한에 주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긍정적 해석도 있다. 차분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만물상' 코너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쐈지만 휴가를 취소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휴가지에 있어도 문제없이 굴러가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그런데 새 정부가 진짜 대비 시스템을 갖추고 이러는건지, 그냥 선진국 대통령 흉내나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썼다.이하늬 기자[미디어오늘 바로가기] [미디어오늘 페이스북]미디어오늘을 지지·격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저작권자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